

## 해부학 선생이 의학용어집 제6판을 만드는 데 참여한 경험

정민석<sup>1</sup>, 오창석<sup>2</sup>, 이영일<sup>3</sup>

<sup>1</sup>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sup>2</sup>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sup>3</sup>단국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 Experience for an Anatomist to Participate in Production of the Korean Medical Terminology

Min Suk Chung<sup>1</sup>, Chang-Seok Oh<sup>2</sup>, Young Il Lee<sup>3</sup>

<sup>1</sup>Department of Anatomy,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p>2</sup>Department of Anatomy,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p>3</sup>Department of Anatomy, College of Medicin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 Anatomical terms and medical terms have influenced each other in Korea. The first author of this paper participated in making the sixth edition of the Korean medical terminology (2019) as an anatomist. Experience of the participation is announced to help other anatomists trim the anatomical terms. While the fifth edition of medical terminology included the new anatomical terms minimizing the Chinese terms and the old ones maximizing the Chinese terms, the sixth edition remained only one of the new or old anatomical terms in principle. To make the new anatomical terms more persuasive and more acceptable in the seventh edition of the medical terminology,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anatomical terms with reference to the sixth edition.

**Keywords** : Anatomical terms, Medical terms, History of terminology, Refining of Korean terms

### 서 론

대한해부학회 해부학용어집(제6판: 18,555개)과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집(제6판: 50,759개)은 제1판부터 비슷한 시기에 나왔으며, 그 터울은 10년쯤이었다(Table 1).

해부학용어집과 의학용어집은 일본 한자가 주된 옛 용어 또는 토박이말이 주된 새 용어를 쓴다. 해부학용어집 제1, 2

판[1,2]과 의학용어집 제1, 2, 3판에서는 옛 용어를 많이 썼다. 그러나 해부학용어집 제3판[3]과 의학용어집 제4판[4]에서는 옛 용어 대신 새 용어를 많이 썼다. 해부학용어집 제4, 5, 6판[5-7]에서는 제3판에서 만든 새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 발전시켰다[8]. 그러나 의학용어집 제5판[9]에서는 제4판에서 만든 새 용어와 이전의 옛 용어를 나란히 놓았는데, 이것은 임상 의사들이 새 용어에 거세게 반발하였기 때문이다(Tables 1, 2).

의학용어집 제6판에서는 새 용어와 옛 용어 중 하나만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며, 이것을 위해서 권장용어 159개를 정하였다. 각 용어에서 권장용어가 아닌 것을 지웠으며, 지우기 어려우면 동의어로 처리하였다(Table 2).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February 28, 2019; **Revised:** March 14, 2019; **Accepted:** March 15, 2019

**Correspondence to:** 정민석(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dissect@ajou.ac.kr

이 논문의 첫째 저자는 2014년 1월에 대한의사협회 의학 용어실무위원회 위원이 되었으며, 2015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의학용어집 제6판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다. 3년 반 동안 70번이 넘는 회의에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하였고, 많은 숙제를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첫째 저자가 의학용어집 제6판을 만드는 데 참여해서 느낀 것을 다른 해부학 선생에게 알림으로써, 앞으로 해부학용어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 주는 것이었다.

**1. 의학용어실무위원회**

의학용어집 제6판을 위한 의학용어실무위원회는 위원장(신경과)과 15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졌다. 위원의 전공은 주된 임상과(소화기내과, 신장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이거나, 의학용어에서 비중이 큰 임상과(신경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예방의학과, 병리학)이거나, 기초의학(해부학교실, 생화학학교실)이거나, 국어국문학과였다.

의학용어실무위원회는 우리말 용어를 다듬기에 앞서 영어 용어를 삭제하거나 추가하였고, 동시에 영어 용어를 다듬었다. 이 논문은 우리말 용어만 다루었으며, 따라서 우리말 해부학용어, 우리말 의학용어를 각각 해부학용어, 의학용어로 줄여서 썼다. 또한 이 논문은 해부학과 관련된 의학용어만 다루었다.

다른 과의 용어와 달리 해부학용어는 임상 의사가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해부학용어로 만든 임상용어가 워낙 많아서, 해부학용어는 의학용어실무위원회에서 언제나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었다.

**새 해부학용어를 따른 경우**

대한해부학회 용어위원회는 제3판에서 해부학용어(신경해부학용어, 조직학용어, 발생학용어 포함)를 토박이말로 쉽게 만들었고(Table 1) [3], 그 다음 판에서도 잇달아 짜임새 있게 다듬었다[8]. 의학용어실무위원회는 이것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새 해부학용어를 따른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모든 Gland를 “샘”으로 정했다. 이 경우에는 새 해부학용어를 권장용어로 삼았고(Table 3), 새 해부학용어에 맞추어서 관련 임상용어를 고쳤다.

이해하기 쉬운 새 해부학용어를 썼다. 예컨대 Umbilical은 “제.”를 지우고 “배꼽.-, 탯줄.-”만 남겼으며, Groove, Sulcus는 “구.”를 지우고 “고랑”만 남겼다. Supra-, Infra-, Sub-, Retro-를 되도록 토박이말(-위, -아래, -밑, -뒤)로 통일하였으나, 굳어진 말은 한자어(-상, -하, -후)를 함께 썼다. 머리계측점을 “턱 끝점, 귀구슬점”처럼 새 해부학용어로 통일하였다(Table 4).

짜임새 있는 새 해부학용어를 썼다. “노뼈치킨면”처럼 뼈의 구조물이면 “뼈”를 넣었고, “노동맥”처럼 뼈의 구조물이 아니면 “뼈”를 뺐다. “홀”은 “작, 쌍”의 반대말로, “홀”은 “다(발)”의 반대말로 썼다. “살”을 “살(권장용어: 회음)”과 “고살”으로 구별하였다(Table 4).

직역한 새 해부학용어를 썼다. Disc는 직역한 “원반”을 덧붙였다. 거꾸로 의역한 새 해부학용어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Piriform은 직역한 “이상”으로 뜻을 알 수 없으므로 의역한 것을 덧붙였고, Plantaris는 직역한 “족척”이 틀리므로 의역한 것을 덧붙였다(Table 4).

**새 해부학용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새 해부학용어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이 경우에

**Table 1.** Publishing years of the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and Korean medical terminology in sequential editions.

	1st edition	2nd edition	3rd edition	4th edition	5th edition	6th edition
Anatomical terminology	1978* (Old)	1981* (Old)	1990 (New)	1996 (New)	2005* (New)	2014 (New)
Medical terminology	1977 (Old)	1983 (Old)	1992 (Old)	2001 (New)	2009 (New, old)	2019 (Recommended)

\*Excluding the histological terms and embryological terms  
 (New) means the new terms minimizing the Chinese terms made by Japanese.  
 (Old) means the old terms maximizing the Chinese terms made by Japanese.  
 (Recommended) means the selected terms between the new and old ones.

**Table 2.** Examples of the old and new medical terms in sequential editions of the medical terminology.

	3rd edition	4th edition	5th edition	6th edition
Gyrus rectus	곧은이랑, 직회	곧은이랑	곧은이랑, 직회	곧은(뇌)이랑*
Splenic artery	비장동맥, 비동맥	지라동맥	지라동맥, 비장동맥	비장동맥* [동] 지라동맥

\*권장용어가 “이랑, 비장”임.  
 [동]은 동의어를 뜻함.

**Table 3.** Recommended medical terms (6th edition) that follow the new anatomical terms.

Anastomosis (연결)	Gland (샘)	Lid (눈꺼풀)	Pylorus (날문)	Stroma (버팀질)
Arytenoid (모뿔-)	Globus pallidus (창백핵)	Matrix (바탕질)	Radicular (뿌리-)	Sub- (-밑)
Blepharo- (눈꺼풀-)	Gonad (생식샘)	Mediastinum (가슴세로칸)	Retro- (-뒤)	Sublingual (혀밑-)
Cardia (들문)	Gyrus (이랑)	Notch (파임)	Salivary gland (침샘)	Submandibular (턱밑-)
Cervical (목-)	Infra- (-아래)	Palate (입천장)	Sebaceous (기름샘-)	Sulcus (고랑)
Cheilo- (입술-)	Infundibular (깔때기-)	Palpebra (눈꺼풀)	Sialo- (침샘-)	Supra- (-위)
Cochlea (달팽이)	Inguinal (고살-)	Parotid gland (귀밑샘)	Somatic (몸-)	Sweat gland (땀샘)
Diverticulum (곁주머니)	Jugular (1. 목- 2. 목정맥-)	Pleura (가슴막)	Sphincter (조임근)	Tendon (힘줄)
Fascicle (다발)	Labia (입술)	Prostate gland (전립샘)	Striatum (줄무늬체)	Thyroid gland (갑상샘)

하이픈은 접두사, 접미사 또는 형용사를 뜻함.  
1, 2는 의미가 두 개인 것을 뜻함.

**Table 4.** Examples of the medical terms (6th edition) that follow the new anatomical terms.

	5th edition	6th edition
Umbilical fistula	배꼽삿길, 제누공	배꼽삿길
Umbilical souffle	뱃줄잡음, 제대잡음	뱃줄잡음
Terminal groove	분계고랑, 분계구	분계고랑
Parietooccipital sulcus	마루뒤통수고랑, 두정후두구	두정후두고랑 [동] 마루뒤통수고랑
Supratonsillar fossa	편도위오목, 편도상와	편도위오목
Infraclavicular approach	빗장아래접근법, 쇄골아래접근법	빗장아래접근, 쇄골아래접근
Subcapsular hematoma	피막밑혈종, 피막하혈종	피막밑혈종
Retrobulbar	1. 숨뇌뒤-, 연수후부- 2. 눈뒤-, 안구후-	1. 숨뇌뒤-, 연수뒤- 2. 눈뒤-, 안구뒤-
Supraspinatus fossa		가시위오목, 극상와
Infratrochlear nerve		도르래아래신경, 활차하신경
Subarachnoid		거미막밑-, 지주막하-
Retroflexus		뒤굽이, 후굴
Gnathion	턱끝융기점, 아래턱뼈끝점	턱끝점
Tragion	귀구슬점, 트라지온	귀구슬점
Radial tuberosity		노뼈거친면, 요골조면
Radial artery		노동맥, 요골동맥
Ganglion impar	홀신경절, 무대신경절	홀신경절
Solitary lymph node		홀림프절
Perineum	회음, 살	회음 [동] 살
Inguinal canal	살굴, 서혜관	고살굴
Optic disc	시(각)신경유두	시신경유두, 시신경원반
Piriformis muscle		궁둥구멍근, 이상근
Plantaris muscle		장딴지빛근, 족척근

5th edition의 빈 칸은 본래 없거나, 6th edition과 같음을 뜻함.  
[동]은 동의어를 뜻함.  
하이픈은 형용사를 뜻함.  
1, 2는 의미가 두 개인 것을 뜻함.

는 옛 해부학용어를 권장용어로 삼았다(Table 5).

영어 용어와 우리말 용어가 1대 1로 들어맞지 않는 새 해부학용어를 쓰지 않았다. 예컨대 “우목”과 “오목”을 “오목”으로 통일하였고, “손바닥”과 “바닥”을 “손바닥”으로 통일하였다. “사이막”과 “중격”을 “중격”으로 통일하였고, 해부학용어에만 “사이벽”을 덧붙였다. “토리”를 “토리, 소체, 사구체”로 구별하였다. 잘 구별한 새 해부학용어를 쓰지 않기도 하였다. “팔꿈치, 팔뚝, 팔오금”을 “팔꿈치”로 통일하였다 (Table 6).

의역한 새 해부학용어를 쓰지 않았다. “칸사이근막활(Iliopectineal arch), 난관(Uterine tube), 자궁관(Oviduct)” 대

신 직역한 “엉덩두덩활, 자궁관, 난관”을 썼다. 되풀이하는 글자를 남긴 해부학용어를 쓰지 않았다. “각막공막”을 “각공막”으로 줄였다(Table 6).

임상의사한테 낯선 새 해부학용어를 쓰지 않았다. “넓다리뼈”를 “넓적다리뼈”로 고쳤고, “샘창자, 자궁목, 뒤통수” 대신 “십이지장, 자궁경부, 후두”와 같은 옛 해부학용어를 썼다. 임상용어가 아닌 해부학용어만큼은 새 해부학용어(보기: 자궁목관)를 동의어로 넣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하였다 (Table 6).

맞춤법에 어긋난 새 해부학용어를 쓰지 않았다. “패임, 내뿜”을 “파임, 내뿜”으로 고쳤다. 라틴어 차례대로 번역한 해

**Table 5.** Recommended medical terms (6th edition) that do not follow the new anatomical terms.

Abdomen (복부)	Endometrium (자궁내막)	Left (좌-)	Pancreas (췌장)	Renal (신(장)-)
Airway (기도)	Epicardium (심외막)	Lung (폐)	Paransal sinus (부비동)	Renal failure (신부전)
Biliary (1. 담즙- 2. 담도- 3. 담낭-)	Frontal lobe (전두엽)	Medulla (수질)	Parietal lobe (두정엽)	Right (우-)
Cecum (맹장)	Gallbladder (담낭)	Mesentery (장간막)	Perineum (회음)	Scalp (두피)
Cholecyst (담낭)	Glomerulus (사구체)	Myocardial (심근-)	Peritoneum (복막)	Sigmoid colon (구불결장)
Colon (결장)	Ileum (회장)	Nephro- (신(장)-)	Pulmonary (폐-)	Spleen (비장)
Cortex (피질)	Intestine (장)	Occipital lobe (후두엽)	Pyelo- (신우-)	Temporal lobe (측두엽)
Duodenum (십이지장)	Jejunum (공장)	Orbit (안와)	Rectum (직장)	Uterine cervix (자궁경부)
Endocardium (심내막)	Kidney (신장)			

하이픈은 형용사를 뜻함.  
1, 2, 3은 의미가 세 개인 것을 뜻함.

**Table 6.** Examples of the medical terms (6th edition) that do not follow the new anatomical terms.

	5th edition	6th edition
Acetabular fossa		절구오목, 비구와
Temporal fossa	관자오목, 측두와	측두와, 관자오목
Palmar aponeurosis		손바닥널힘줄, 수장건막
Common palmar digital artery	온바닥쪽손가락동맥, 총장측지동맥	온손바닥쪽손가락동맥, 총수장지동맥
Interventricular septal defect	심실사이막결손, 심실중격결손	심실중격결손
Nasal septum	코사이막, 비중격	비중격, 코사이벽
Glomus tumor	토리종양, 사구종양	토리종양
Carotid body	목동맥토리, 경동맥소체	목동맥소체, 경동맥소체
Tubuloglomerular feedback	요세관사구체되먹임, 요세관토리되먹임	요세관사구체되먹임
Olecranon	팔꿈치머리, 자뼈팔꿈치돌기	팔꿈치머리, 주두
Elbow joint	팔꿈관절, 주관절	팔꿈치관절, 주관절
Cubital fossa	팔오금, 주관절와	팔(꿈치)오금, 주관절와
Iliopectineal arch	칸사이근막활, 장골치골궁	영덩두명활, 장골치골궁
Uterine tube	자궁관, 난관	자궁관
Oviduct [동] Uterine tube	자궁관, 난관	난관
Corneoscleral furrow	각막공막고랑	각막고랑
Femoral canal	넓다리관, 넓적다리관, 대퇴관	넓적다리관, 대퇴관
Femoral hernia	대퇴탈장, 넓다리탈장	넓적다리탈장, 대퇴탈장
Duodenitis	샘창자염, 십이지장염	십이지장염
Cervical cancer	자궁경부암, 자궁목암	자궁경부암
Cervical canal	자궁목관, 자궁경관	자궁경부관 [동] 자궁목관
Occipital plagiocephaly	뒤통수술편머리증, 후두사두증	후두사두증
Notch	패임, 절흔	파임 [동] 절흔
Protraction	내밌	내밌
Descending genicular artery	무릎내림동맥, 하행슬동맥	내림무릎동맥, 하행슬동맥
(Arteria descendens genus in Latin)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앞위엉덩뼈가시, 전상장골극
(Spina iliaca anterior superior in Latin)		

5th edition의 빈 칸은 본래 없거나, 6th edition과 같음을 뜻함.  
[동]은 동의어를 뜻함.

부학용어를 쓰지 않았다. 영어 차례대로 번역한 “내림무릎 동맥, 앞위엉덩뼈가시”를 썼다(Table 6).

### 고찰

해부학용어는 의학용어, 생명과학용어, 수의학용어[10] 등과 관계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용어와 해부학용어를 포함한 의학용어이다. 사람들은 언론과 병원을 통해서 임상용어

와 함께 해부학용어를 보고 듣는다. 그리고 기자와 의사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만든 의학용어집을 따른다. 그러므로 의학용어집이 해부학용어에 끼치는 영향은 무척 크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해부학용어는 의학용어의 영향을 받아 왔다. 이를 테면 Dura mater의 우리말은 해부학용어집 제5판에서 “경질막”이었다가, 제6판에서 의학용어에 따라 “경막”으로 바뀌었다. 거꾸로 의학용어는 가장 밀바탕이면서, 쉽고 짜임새 있는 해부학용어의 영향을 받아 왔다. 대표적인 보기를 들면, 의학용어집 제6판에서 Gland의 우리말 “샘, 선”을 “샘”

으로 통일한 것이다(Table 3).

의학용어집 제6판의 가장 큰 특징은 권장용어를 정했다는 것이다(Table 1). 새 용어와 옛 용어가 나란히 있으면 혼란을 일으키고, 의로 전산화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명분 때문이었다. 권장용어를 정할 때에는 임상사의 설문 조사가 큰 역할을 차지하였다. 그 결과, 권장용어는 누구한테나 쉬운 새 해부학용어도 담았고(Table 3), 임상사한테 낯익은 옛 해부학용어도 담았다(Table 5). 의학용어집 제7판에서도 권장용어를 고치거나 추가할 것이다. 세대가 바뀔수록 한자를 더 모르는 임상사한테 새 해부학용어가 쉽게 다가갈 것이고, 따라서 새 해부학용어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뼈대계통의 권장용어는 거의 결정하지 않았는데(Tables 3, 5), 이것은 새 해부학용어의 장점과 옛 해부학용어의 장점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따라서 뼈대계통뿐 아니라 관절계통, 근육계통, 혈관계통, 말초신경계통의 해부학용어와 임상용어는 제5판처럼(Table 1) 새 해부학용어와 옛 해부학용어를 함께 쓰는 경우가 많았다(보기: 빗장아래접근, 쇄골아래접근)(Table 4)(보기: 넓적다리관, 대퇴관; 앞뒤엉덩뼈가시, 전상장골극)(Table 6). “해면뼈, 해면골” “골세포, 뼈세포”처럼 “뼈”와 “골”의 차례가 한결같지도 않았다. 옛 해부학용어를 지우기도 하였는데, 이를테면 “코뼈, 비골” “광대뼈, 관골”에서 “비골” “관골”을 지웠다. 의학용어집 제7판에서 뼈대계통의 권장용어를 결정할 수 있으며, 대한해부학회의 용어위원회는 이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의학용어실무위원회는 새 해부학용어를 따르기도 하였고 따르지 않기도 하였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의학용어집 제6판에서 권장용어를 정하고 적용하였다(Tables 3, 5). 이제부터는 의학용어실무위원회가 새 해부학용어를 따르지 않은 경우를 고찰하겠는데, 그래야 새 해부학용어를 앞으로 어떻게 다듬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새 해부학용어에서 가끔 영어 하나를 우리말 둘로 번역하였는데, 의학용어에서는 되도록 우리말 하나로 통일하였다. 첫째 보기를 들면, 해부학용어집 제5판에서 덜 들어간 “잘록”과 더 들어간 “잘룩”을 구별하였는데, 해부학용어집 제6판에서는 “잘룩”으로 통일하였다(보기: 갑상샘잘룩). 그러나 해부학용어집 제6판에서 여전히 작은 “오목”과 큰 “우목”을 구별하였는데, 의학용어에서는 이것을 “오목”으로 통일하였다(Table 6). “오목, 우목”으로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의학용어에는 수많은 임상의학용어, 기초의학용어가 있으며, 해부학용어는 그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새 해부학용어의 꼼꼼한 구별을 무턱대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둘째 보기를 들면, 새 해부학용어에서 Palmar를 “손바닥”으로 번역하다가, Dorsal(등쪽)의 맞선 개념일 때 “바닥”으

로 번역하였다. 의학용어에서는 “손바닥”으로 통일하였다(Table 6). “손바닥, 발바닥”은 정형외과에서 쓰는 옛 해부학용어인 “수장, 족저”와 들어맞게 하자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하였다.

셋째 보기를 들면, 새 해부학용어에서 뼈가 있는 Septum은 “중격”이고, 뼈가 없는 Septum은 “사이막”인데, 의학용어에서는 이 규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꺼운 Interventricular septum이 “심실사이막”일 수 없다는 지적이 거셌다. 마침내 Septum을 “중격”으로 통일하였고, 해부학용어에 한해서 “사이벽”을 덧붙였다(Table 6). 해부학용어에서 Septum을 모두 “사이벽”으로 통일하고, Mesentery를 “창자간막”이 아닌 “창자사이막”으로 정하면 좋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새 해부학용어의 우리말 둘을 의학용어에서 받아들인 경우도 있었다. 보기를 들면 Vertebral(척추-, 척주-), Tympanic(고막-, 고막틀-)이었다. 그러나 우리말을 하나로 통일해야 편리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즉 의학사전에서는 “척추-, 척주-” “고막-, 고막틀-”로 나누어서 풀이할 필요가 있지만, 의학용어집에서는 나누어서 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다.

의학용어에서는 영어와 우리말이 짝을 맞추므로써, 영어로 우리말을 짐작할 수 있고, 우리말로 영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새 해부학용어에서 Perineum, Inguinal을 “살, 고살-”으로 구별하였는데, 의학용어에서는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Table 4). Glomus, Body, Glomerulus를 새 해부학용어에서 “토리”로 통일하였는데, 의학용어에서는 “토리, 소체, 사구체”로 구별하였다(Table 6).

예외도 있었다. Olecranon, Elbow, Cubital을 새 해부학용어에서 “팔꿈치, 팔꿈, 팔오금”으로 구별하였는데, 의학용어에서는 “팔꿈치”로 통일하였다. 이것은 정형외과에서 “팔꿈치, 팔꿈, 팔오금”을 옛 해부학용어인 “주”로 통일한 것과 관계 있었다(Table 6). 비슷한 구조물의 우리말을 만들 때 창의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좋은지, 간단하게 통일하는 것이 좋은지 해부학용어와 의학용어를 견주면서 고민할 문제이다.

해부학용어와 의학용어에서 의역, 직역은 끝없는 숙제이다. 의학용어에서 새 해부학용어의 의역(보기: Piriformis(궁둥구멍근), Piriform aperture(뼈콧구멍), Plantaris(장딴지빗근))을 받아들였다(Table 4). 그러나 의역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였는데, 보기를 들면 Ilipectineal arch(칸사이근막활), Uterine tube(난관), Oviduct(자궁관)이었다(Table 6). 그 결과로 의학용어는 해부학용어에 비해서 직역이 많았다.

새 해부학용어에서 되풀이하는 글자를 빼는 경우도 있었고(Ileocecal 돌막창자-, 남긴 경우도 있었다(Corneoscleral 각막공막-). 의학용어에서는 되풀이하는 글자를 빼는 원칙을

지키려고 애썼고, 따라서 “각막공막.”을 “각공막.”으로 줄였다(Table 6). 해부학용어도 많은 사람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예외 없는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새 해부학용어가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Femur의 우리말 “넙다리뼈”가 그러하였다. 해부학용어에서는 “넓적다리뼈”의 ㅈ 받침이 불편하고, “넙치”처럼 “넙”만 써도 괜찮고, 글자 수가 적으면 좋다고 판단하였다[8]. 그러나 의학용어에서는 이 창의적인 용어가 어색하고, Thigh의 우리말 “넓적다리”와 들어맞지 않아서 문제라고 판단하였다(Table 6). 의학용어에서 Gemellus의 우리말 “쌍둥이근(제5판)”을 “쌍둥근(제6판)”으로 바꾸는 데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

몸통에 있는 기관은 “샘창자, 자궁목”처럼 임상 의사한테 낯선 새 해부학용어를 쓰지 않았다(Table 6). 의학용어실무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소속으로서 거의 임상 의사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임상 의사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다.

해부학용어와 달리 의학용어는 의사가 환자한테 말할 때 괜찮은지 마진다. 이를테면 Stitch는 “ 꿰뿔 ”을 없애고 “ 봉합 ”만 남겼으며, Puncture는 “ 뚫기 ”를 없애고 “ 천자 ”만 남겼다. 마찬가지로 “ 뒤통수뼈 (Occipital bone)”를 환자한테 쓸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 이마뼈, 마루뼈, 관자뼈 ”뿐 아니라 “ 뒤통수뼈, 이마뼈, 마루뼈, 관자뼈 ”도 쓰지 않게 되었다(Table 6). 다른 용어를 위해서라도 “ 뒤통수뼈 ”를 “ 뒷머리뼈 ”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한글 맞춤법을 더 따져야 하는데, 이것은 맞춤법이 해부학용어, 의학용어의 상위법이기 때문이다. 해부학용어집 제5판에서 Pyramid의 우리말 글자 수를 줄이려고 “ 피라밋 ”을 썼다가, 해부학용어집 제6판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 피라미드 ”로 고쳤다[8]. Notch는 새 해부학용어에서 “ 패임 ”이라고 정했는데, 의학용어에서는 맞춤법에 따라 “ 파임 ”으로 고쳤다. Protraction은 새 해부학용어에서 “ 내뺨 ”이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Retraction ( 들임 ) 따위와 함께 미음 받침으로 통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의학용어에서는 맞춤법에 따라 “ 내뺨 ”으로 고쳤다(Table 6).

새 해부학용어에서 사이시옷을 넣지 않았는데, 이것은 수많은 토박이말에 사이시옷을 넣으면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예외로 국어사전에 있는 사이시옷은 지우지 않았다(보기: 꺾바퀴, 아랫배). 국어사전에 있는 사이시옷을 지우는 경우도 있었는데(보기: 위입술동맥, 뒤방), 이것은 다른 용어(아래입술동맥, 앞방)의 맞수이기 때문이었다[6]. 이런 사이시옷의 예외를 의학용어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였지만, 다른 의견도 있었다. 즉 국어사전에 있는 사이시옷을 지우는 것까지 많은 사람이 알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었다.

새 해부학용어에서 맨눈해부학용어는 영어 차례가 아닌 라틴어 차례로 번역하였으며(보기: Arteria descendens genus 무릎내림동맥), 이것은 국제해부학용어에서 라틴어를 주된 용어로 삼았기 때문이다[11-14]. 그런데 의학용어에서는 라틴어가 나오지 않으며, 따라서 마땅히 영어 차례로 번역하였다(보기: Descending genicular artery 내림무릎동맥)(Table 6). 해부학용어집 제6판에서 신경해부학용어, 조직학용어, 발생학용어는 영어 차례로 번역한 것을 비추었을 때[7], 맨눈해부학용어도 영어 차례로 번역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부학용어집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발생학용어에 속한 선천기형용어였다(보기: 입술갈림, 항문막힘). Terminologia Embryologica에 선천기형용어가 있기 때문이었다[13]. 그런데 임상 의사가 없는 해부학용어위원회에서 선천기형용어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고, 어렵게 만들어도 의학용어실무위원회에서 결코 반영하지 않는다. 의학용어실무위원회에서 다른 해부학용어를 반영하는 것을 보았을 때(Tables 3, 4),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해부학용어집에서 선천기형용어를 아예 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해부학용어는 의학용어와 똑같은 적이 없었고, 똑같은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에 속한 다른 학회에서 만든 용어도 의학용어와 똑같지 않다. 이것은 학회마다 나름대로 특수성과 체계가 있기 때문이다. 해부학용어집 제7판에서 의학용어집 제6판의 해부학용어를 모두 받아들이면, 해부학용어집 제6판을 바탕으로 쓴 해부학 교과서를 크게 고쳐야 하는 혼란도 헤아려야 한다.

그래도 해부학용어와 의학용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의학용어가 확실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이라서 더 그렇다. 해부학용어집 제7판이 의학용어집 제6판한테 올바른 영향을 받고, 의학용어집 제7판한테 올바른 영향을 끼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의학용어실무위원회에서는 결국 설득력 있는 용어를 다수결로 결정한다. 해부학용어가 설득력을 많이 갖추도록 대한해부학회 용어위원회에서 더욱 애써야 할 것이다.

## 감사의 말씀

대한해부학회 용어위원회(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한후재 교수)와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실무위원회(위원장: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김주한 교수)에서 첫째 저자에게 의학용어 만드는 데 참여할 기회를 주었으며, 첫째 저자를 잘 이끌어 주었다.

## REFERENCES

1.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1st ed. Seoul: Choesin Euhaksa; 1978.
2.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2nd ed. Seoul: Choesin Euhaksa; 1981.
3.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3rd ed. Seoul: Gyechuk Munhwasa; 1990.
4.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al Terminology. 4th ed. Seoul: Academia; 2001.
5.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4th ed. Seoul: Academia; 1996.
6.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5th ed. Seoul: Academia; 2005.
7. Korean Association of Anatomists.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6th ed. Seoul: Academia; 2014.
8. Chung IH, Koh KS. History of the Korean Anatomical Terminology. Korean J Phys Anthropol. 2017; 4:113-33.
9. Korean Medical Association. Medical Terminology. 5th ed. Seoul: Academia; 2009.
10. Korean Association of Veterinary Anatomists. Veterinary Anatomical Terminology. Seoul: Korea Medical Book Publishing Company; 2013.
11. Federative Committee on Anatomical Terminology. Terminologia Anatomica. Stuttgart: Thieme; 1998.
12. Federative International Committee on Anatomical Terminology. Terminologia Histologica. Philadelphia: Lippincott Wolters Kluwer; 2008.
13. Federative International Programme on Anatomical Terminologies. Terminologia Embryologica. Stuttgart: Thieme; 2013.

**간추림** : 해부학용어와 의학용어는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이 논문의 첫째 저자는 해부학 선생으로서 의학용어집 제6판(2019년)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다. 그 경험을 다른 해부학 선생에게 알림으로써, 앞으로 해부학용어를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 주고자 하였다. 의학용어집 제5판에서는 토박이말이 많은 새 해부학용어와 한자어가 많은 옛 해부학용어를 나란히 놓았는데, 제6판에서는 이중 하나만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 결과로 새 해부학용어가 남기도 하고, 옛 해부학용어가 남기도 하였다. 의학용어집 제7판에서 새 해부학용어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한해부학회 용어위원회는 의학용어집 제6판을 참고하면서 해부학용어를 더 설득력 있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찾아보기 낱말** : 해부학용어, 의학용어, 용어역사, 우리말용어다듬기